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개장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이 27일 개장했다. 이번 시즌에는 시즌별 및 월별이용,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현장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 윈터패스권은 전일권에 하루 1회 스노위랜 드도 이용할 수 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객을 겨냥했다. 리프트권 발권 및 반납용 키오스크도 도입했다.



“파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인재 영입”

순혈주의에 칼 빼든 신동빈 롯데 회장

유통 부문, 경쟁사 대비 성과 하락세 롯데온, 누적 영업손실 1070억 달해 변화·혁신 위해 외부인사 과감 영입 김상현 대표, 글로벌 전문성 기대 커

신동빈 롯데 회장이 그룹의 오랜 전통인 순혈주의를 깨는 승부수를 던졌다. 3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으로 이 베이코리아 출신의 나영호 부사장을, 9월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를 사장급인 디자인경영센터장에 임명하는 등 시동을 걸더니, 25일 단행한 2022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파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인재 영입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유통 공채 출신을 우대해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롯데의 순혈주의 문화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확보를 주문한 신 회장의 의중이 읽히는 부분이다.

●유통 부문 수장에 첫 외부인사 영입

유통 부문 수장인 유통군 총괄대표에 김상현 전 홈플러스 부회장을 선임한 게 대표적이다. 1979년 롯데쇼핑을 출범한 이래 유통 부문 수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유통 부문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확보를 강조하며, 2022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의 오랜 전통인 순혈주의를 깨는 승부수를 던졌다. 올해 초 '2021 상반기 VCM'을 주재하고 있는 신 회장.

롯데쇼핑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1조7890억 원, 영업이익은 9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40.3% 하락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3분기 회망되지 비용(600억 원)이 일시 반영되면서 21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3분기 신장률이 5.9%로, 경쟁사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각각 15%, 15.1%와 대조적이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아침차게 내세운 온라인 쇼핑 통합 플랫폼 롯데온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무려 107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소비의 여파로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

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부회장)가 유통 부문에 혁신과 변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유통 전문가로, 1986년 미국P&G로 입사해 한국P&G 대표, 동남아 총괄 사장, 미국P&G 신규사업 부사장을 거쳤다. 이후 홈플러스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DFI 리테일그룹의 동남아 유통 총괄대표, H&B 총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롯데 측은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e커머스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의 유통사업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순혈주의 색채가 짙은 롯데백화점 대표에는 ‘정통 롯데맨’이 아닌 신세계 출신의 정준호 롯데GFR 대표를 선임했다. 정 신임 대표는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해 신세계인터내셔널 해외패션본부장, 조선호텔 면세사업부장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9년 롯데GFR 대표로 선임됐다.

●롯데호텔 IPO 속도낼 듯

호텔군 총괄대표에는 신사업 전문가로 알려진 안제진 사장을 선임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커니 출신으로, 2005~2017년 LG그룹과 LS그룹에서 신사업 및 사업전략을 담당했다. 2018년부터는 모건스탠리PE에서 글로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호텔 사업에 직접 몸담은 적은 없지만, 롯데호텔의 숙원인 기업공개(IPO)를 적극 추진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장 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만큼 수장 교체로 통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 대표로는 최병환 CGV 전 대표를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또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를 총괄하는 롯데멤버스에는 신한DS 디지털본부장 출신 정봉화 상무를 DT전략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신동원 회장 물러난다…농심, 이병학 대표 선임



이병학 신임대표

농심이 12월 1일자로 이병학 생산부 문장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 부사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심은 박준 부회장과 이병학 부사장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가 된다. 신동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룹회장직만 맡는다.

이 신임 대표는 1985년 농심에 입사해 36년간 생산현장에서 근무해온 생산 전문가다. 회사 측은 “공장 설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생산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초와 내실을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부장은 구매담당 임원(상무)으로 승진한다.

정정욱 기자

건강을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치아교정, 경험 풍부한 전문의와 상담해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자녀의 치아교정을 위해 치과 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치아교정은 고르지 않은 치열을 바로잡아 주는 치과 치료로 심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작기능이나 발음 및 소화장애 등 기능적인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치열이 고르면 충치나 잇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치아교정을 통해 부정교합과 같은 턱 성장과 연구치 문제 발견이 쉽고 바른 성장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인 만큼 자신감 향상 및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치아교정은 진행 과정에서 내원 횟수가 많고 초기에는 상담, 정밀진단, 장치부착 등을 위해 여러 번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한다. 또한 장치로 인한 이물감, 통증 등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아이마다 연구치가 나오는 시기나 성장 및 발육 단계가 달라 정확히 진단한 후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얼굴형과의 조화, 성장 속도, 환자의 구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교정이 이뤄져야 한다.

안정적인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정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정밀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경과 관찰을 통한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원 서울대병원치과의원 문형욱 대표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lthuki@donga.com

LS그룹, 구자은 회장 체제로…“제2도약 이끌 책임자”

LS그룹이 구자은 회장 체제를 맞이한다. LS그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기로 결정했다. LS그룹의 ‘사촌 공동 경영’ 방식에 따른 것으로, 구자열 LS회장이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승계하며 ‘아름다운 승계’라는 LS만의 전통

을 이어갔다.

LS는 초대 회장인 구자홍 회장이 2004~2012년까지, 2대 회장인 구자열 회장이 2013~2021년까지 각각 9년간 그룹 회장직을 역임해 왔다.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은 회장은 사원으로 입사해 GS칼텍스,



구자은 회장

LG전자, LG상사, LS-Nikko동제련, LS전선, LS엠트론 등을 거치며 전자, 상사, 정유, 비철금속, 기계,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를 망라한 현장 경험을 두루 쌓았다. 2019년부터는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을 맡아 각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과제를 촉진하고, 애자일 경영기법을 전파하는 등 LS그룹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구자은 회장은 ESG와 친환경 흐름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LS가 주력으로 하는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LS의 제2도약을 이끌 책임자로 꼽힌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명품 반목폴라 니트 파격세일! 가슴주머니 적용으로 실용성 확대!

2점 39,800원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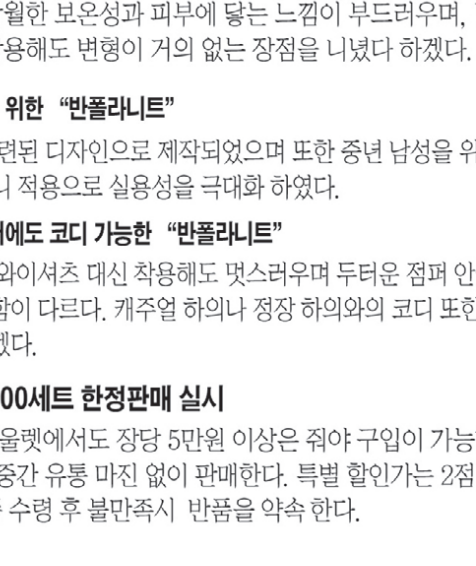
카키



베이지



블랙



그레이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겨울 필수 “반폴라니트”

반목폴라의 탁월한 보온성과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우며, 땀을 거둬들여 착용해도 변형이 거의 없는 장점을 니트보다 하겠다.

매력적인 중년을 위한 “반폴라니트”

중후한 멋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또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왼쪽가슴 주머니 적용으로 실용성을 극대화 하였다.

어느 하의와 점퍼에도 코디 가능한 “반폴라니트”

상의 정장안에 와이셔츠 대신 착용해도 멋스러우며 두터운 점퍼 안에 착용해도 편안함이 다르다. 캐주얼 하의나 정장 하의와의 코디 또한 환상적이라 하겠다.

유통마진 뺀 500세트 한정판매 실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도 장당 5만원 이상은 줘야 구입이 가능한 반폴라니트를 중간 유통 마진 없이 판매한다. 특별 할인가는 2점에 39,800원 상품 수령 후 불만족시 반품을 약속한다.

중간 유통마진 완전 제거! 2021년 겨울 500세트 한정판매!



소매끝을 모아주는 시보리적용



움직임이 편안한 뛰어난 신축성



세련된 넥 봉제 마감처리



왼쪽가슴주머니 적용

사이즈 95, 100, 105 ※ 각종 신용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판매가 2점 39,800원 (배송비 3,000원 소비자부담)
3점 53,0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튼
홈페이지 www.OPTOP.co.kr 주문전화 1644-3606